

스튜디오삼익, 성장세 뚜렷... 갑진년 '매출 1000억' 달린다

스튜디오슬립 등 자체 브랜드 확대
2022년 대비 매출 10% 이상 증가
최정석 대표 "올해 추가성장 기대"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온라인
홈퍼니싱 기업 스튜디오삼익이 '순항'
하고 있다.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관련
시장에서 매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등 영역을 넓혀가면서다.

20일 스튜디오삼익과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에 따르면 잠정치 기준으로 지난
해 9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00억
매출'에 더욱 바짝 다가섰다. 직전년도
매출은 866억원 수준이었다. 10.2% 가
량 매출이 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2022년 24억원에서 지난
해 2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당기순이
익은 25억원(2022년 19억원)을 기록했
다. 주당이익은 575원에서 734원으로 1
년새 27.6% 늘었다.



최정석 스튜디오 삼익 대표

스튜디오삼익은 종합 홈퍼니싱 기업
이다. '홈(home)'과 꾸민다는 의미를
가진 '퍼니싱(furnishing)'을 합한 단
어로 가구, 인테리어 소품, 홈스타일링
용 생활용품 등의 제품이 여기에 포함
된다.

국내에선 스튜디오삼익 외에 한샘,
신세계가사, 현대리바트, 오하임앤컴퍼
니, 동서가구 등이, 해외 브랜드로는 이
케아코리아가 있다.

스튜디오삼익은 현재 삼익가구를 온
라인으로 판매하는 '삼익퍼니처', 2040



죽산목공소 제품 이미지

/스튜디오삼익

세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스칸디아',
원목가구 브랜드 '죽산목공소', 침대·
매트리스 수면 전문 브랜드 '스튜디오
슬립' 등을 선보이고 있다.

최정석 스튜디오삼익 대표는 "지난
해 10월 론칭한 스튜디오슬립은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가격 부담은 낮추
자는 목표로 내놓은 중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서 "기존의 삼익퍼니처, 스
칸디아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긴 호흡으로 선보인

브랜드인 만큼 제품 라인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올해 안착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
했다.

스튜디오삼익은 스튜디오슬립을 선
보이기 위해 2년간 핵심소재에 대한 연
구와 시험을 진행해왔다. S9 매트리스
의 경우 스테인레스 스프링, 말총, 메모
리폼 등 고급 소재로 만들었다. S7 매트
리스는 마이크로 스프링, 미니포켓스프
링 등 고가의 스테인레스 스프링을 탑

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소
매판대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당시 41.55% 수준이던 온라
인 비중은 지난해 51.4%로 절반을 넘어
섰다. 온라인 구매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스튜디오삼익의 주력 파트너사인 쿠
팡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
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분기별 매출을 보
면 4·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올해도 시작이 좋은 분위기"라
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고, 금리 상
승세도 멈추는 등 가구시장을 둘러싼 거
시적 여건도 호의적인 모습이어서 올해
추가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한 스튜디오삼익은 이날 현재 1만5000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왼쪽부터)투신(Tuushin)그룹 푸림출판 부사장, 저리트 남스라이자브 사장, (주)한진 노삼석 대
표, 조현민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몽골 물류사업 본격화

몽골 대표 물류기업 투신그룹 MOU
"현지 업체 파트너십 강화해 나갈 것"

한국과 몽골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
만나 몽골 현지 물류사업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건다.

한진은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한진
빌딩에서 몽골 최초의 종합물류기업 투
신(Tuushin)그룹과 상호 포워딩과 물
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1945년 한진상사로 태동한 ㈜한진은
약 80년 업력으로 물류사업에만 집중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쌓아올
린 전문성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근 해외로 활발히 진출해 올해 22개
국, 42거점(17개 법인)으로 글로벌 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진은 지난해 1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면
서 몽골 내 광범위하게 퍼진 한류를 바
탕으로 한국과 몽골 간 활발한 교역에

수반되는 물류서비스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사업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한진은 투신그룹과 협약을 통해 향후
항공·해상·내수 포워딩 사업 부문에 대
한 운임과 보유자원에 대해 상호협력하
는 동시에 물류 부문 서비스 역량을 공
동개발하며,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교차 활용해 거점을 효과적으로 늘려나
가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몽골 국토교통부가 현재 울란바
토르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물류사업
을 육성 추진하는 가운데 울란바토르
도심 인근 연 60만 TEU 규모의 통합물
류센터 구축에 대한 협업 역시 검토가
이뤄져 고무적인 상태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향후 현지 유
통기업들과 영업망 활성화를 비롯해 철
도 관련 포워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물류사업
강화를 위해 역량을 보유한 현지 업체
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70% "플랫폼법 제정 반대"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인식 조사
응답기업 90%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거래위
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
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230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68.7%
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
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
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
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 사항도 조사했다. 그 결과, 공
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
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
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
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
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
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에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
으로 조사됐다. ▲폐쇄적인 행정편의
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
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
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
중도 높았다. /김승호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윤호영 카카오
뱅크 은행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카카오뱅크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기술보증기금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
해 나선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협약은 최근 인
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기반 비대면 금
용서비스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속
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의 디
지탈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
응하기 위해 유익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비대면 금융
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 데이터 교
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
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
정이다.

기보는 향후 카카오뱅크 비대면 채널
을 통해 보증신청·접수, 자료수집, 보증
약정, 대출실행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
한 '원스톱(One-Stop) 보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韓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강석진 이사장, 현지기관 협력관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한국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
흘간 강석진 이사장(사진)이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한·태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국내 기업의 태국 진출 활



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이사장은 또 싱
가포르 항공우주산업
협회(AAIS)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
국의 미래항공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시
장 진출 지원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아
울러 싱가포르 내 동남아시아 투자전문
회사인 리겔 캐피탈과 한국 스타트업 투
자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유엔 인권최고대표, 홍콩 新국가보안법 통과에 우려
- ▲ 美, 테슬라 독점 기술 빼내 사업에 이용한 중국인 등 기소



- ▲ 한국 선박, 日 혼슈 서부 야마구치 앞 바다서 전복
- ▲ "美·유럽은 금리 내리는데...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줄속 정상화' 리스크"



- ▲ 中서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 "입에 다 훑고 쓰레기 집어넣고"
- ▲ 페루 대통령, '연봉보다 비싼 시계' 샀다가 검찰 조사 받